

산업단지 기반시설 환경 정비

군산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근로여건 개선 위해

군산시는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관내 산업단지 일원의 주요 도로 및 위험지역 등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업대상별 사업비는 소룡동 일원 국가산업단지과 일반산업단지에 1억원, 농촌지역 소재 농공단지 4개소(성산, 서군산, 임피, 동군산)에 5억원이다.

시는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관리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 기업에게 보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

경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내 제5부두 주변 노후도로 포장, 서수 산업단지 인도정비 등 산업단지 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인도정비, 상·하수도 및 휴게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또 산업단지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울타리를 정비하여 환경개선을 이루고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지난 3월부터는 국가산업단지 내 세아시범 주변 연장 500m의 노후 도로 정비를 마쳐 대형 화물차량의 운송여건을 개선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로 농공단지 일원의 기반시설과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의 정비를 통해 근무환경 향상과 근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상황이 불편한 농공단지의 사업 환경개선을 위해 수시로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풍수해 재난대비 긴급복구 등의 빠른 대처를 위해 전문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입주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노후 산업단지 이미지를 개선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평화지구 LH 아파트의 분양기를 3.3㎡ 당 800만원대로 금년 6월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침체된 구도심 활기 되찾아”

익산시, 평화지구 LH 아파트 6월말 분양

익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평화지구 LH 아파트의 분양가를 3.3㎡ 당 800만원대로 금년 6월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LH는 3월말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익산시는 다소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염두를 두고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요구해왔다.

최근 건축 자재 가격 급등 및 LH 개혁 추진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는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LH와 지속 협의해 800만원대의 분양가를 이끌어냈다.

최종 분양가는 6월 중 LH의 분양가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800만원 중후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익산시는 설명했다.

이어서 6월 말 주민 우선 공급 공고를 시작으로 7월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건

본주택은 익산경찰서 뒤편에 위치해 있다.

평화지구 LH 아파트는 총 1382세대 규모로 분양 1,094세대(전용면적 84㎡), 임대 288세대(전용면적 39㎡, 59㎡)이며,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에서 구상하는 대형 공공개발사업에 LH가 참여하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LH와 정치권에 감사드린다"며 "평화지구 아파트 공급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아 우리시 인구 유출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체력인증센터, 유아기 체력측정 전복권 최초'

익산시가 유아기 어린이들의 체력측정으로 올바른 성장을 돕는다.

익산 체력인증센터는 아이젠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만4~6세(48개월~88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지난 17일과 20일 체력측정 서비스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국민체력100 유아기 체력인증서비스 사업이 올해 도입되어 전복권역 최초로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총 측정항목은 7가지로 근력·근지구력·유연성·심폐지구력·민첩성·순발력·협응력을 측정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측정도를 데이터 값으로 알려준다.

센터는 국공립·사립유치원 등의 참여를 통해 인증기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 스마트팜 농업 현장방문

군산시는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대야면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선진 스마트농업 교육소를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구축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570㎡)을 활용한 현장 실습형 스마트 농업 기초교육을 지난 4월부터 오는 8월까지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초교육은 스마트 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시설재배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장 내에 설치된 장비와 환경제어기를 직접 사용해보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기초교육 이후에는 심화교육을 진행해 단발성이 아닌 향후 스마트 농업의 토대가 될 농업인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현장 실습형 스마트 농업 기초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일상을 함께하는 너와 나의 발걸음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지역사회 적응교육 '발 맞춤' 추진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은 오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관내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14개소에서 지역사회 적응교육 '발 맞춤'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생활 현장교육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성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발달장애성인의 경우 성인기로 전환된 후 교육 단절로 인해 지역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적응 능력 함양 및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안테마공원 등에서 지역사회 내 역사를 인식하고, 볼링장 및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여 개인 건강 관리와 공공시설 에티켓 등을 몸소 익히며 관내 갤러리 및 공방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 본다.

특히 이번 '발 맞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성인과 메이트를 1:1매칭해 안전하게 현장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메이트를 모집 중에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제한되었던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적응교육을 통한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은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후보, 출정식 갖고 공식 선거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정헌을 익산시장 후보가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19일 선거사무소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8년간 단단하게 다져놓은 미래 발전의 초석을 토대로 익산발전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오직 시민들을 위한 클린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는 한병도 국회의원(익산)과 조용식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을지역 시·도의원 후보 전원이 참석해 지지층 결집에 힘을



모았다. 한 의원은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익산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을 이뤄 익산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

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 행보로 북부시장을 방문하며 소상공인·지역일자 맞춤형 복지정책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정 후보는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으로 다이로움 발행 규모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이자 전액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후에는 모현동 사거리에서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과 갑 지역 시·도의원이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중앙체육공원 새 단장, 힐링쉼터 조성

중앙체육공원이 새 단장으로 시민 곁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번에 준공된 다이로움 스포츠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체육공원이 익산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특색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공원내내 판 5개소 쉼터 14개소 등에 적용해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새롭게 정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익산의 대표 공원인 중앙체육공원의 상징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형으로 공원의 정체를

높였고,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새롭게 개선하여 간결하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중앙체육공원에 특화된 개발된 로고와 픽토그램(사물이나 시설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낸 그림 문자) 등을 적용해 진출입구와 주요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음압분수와 메타세과 이어질 옆에 스마트폰 충전이 되는 파고다 쉼터를 비롯한 다양한 쉼터를 조성하고 지압길 내 갈대 모양의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